朝鮮日報 夕刊 十日(土)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廢刊辭

朝鮮日報는 新聞統制의 國策에 順應하여 今日로써 廢刊한다. [illegible]

一

[illegible]

二

回顧하건대 朝鮮日報는 二十年前 自由主義가 世界에 [illegible]

三

革新的時代 本報는 正義擁護, 文化建設, 產業發展, 不偏不黨의 四大綱領을 내어세워 社會民衆에 웨어치고 報道의 天職을 다하여왓다. 그래서 社會와 民衆의 支持와 聲援은 날을 지나고 달이 갈수록 增大하여젓던것이다. [illegible]

四

支那事變勃發以來 本報는 [illegible]

廢刊에 際하여

方應謨 談

[illegible]

自我功利思想을揚棄 强力的經濟統制確立

小林商相西下車中談

【小田原發同盟】 小林商相은 新任挨拶次 九日午後十時三十五分 東京驛發西下하엿는데 生産力擴充, 貿易政策, 物價統制等의 諸問題에 關하여 如左히 말하엿다

一、現下의 我國에 最大의 使命은 日滿支의 强力한 結合을 根幹으로하는 大東亞共同經濟圈을 確立하여 [illegible]

文部省首腦部會議

【東京電話同盟】 文部省에서는 [illegible]

本社臨時株主總會

[illegible]

各界人物招致 首相、意見交換豫定

[illegible]

農業再編成

審議會서 決議

[illegible]

臨時家族手當 十月부터實施決定

外相、首相과會談

[illegible]

英國支那駐屯軍撤去 駐兵權을事實上拋棄

【倫敦九日發同盟】 英國政府는 [illegible]

洞庭湖銃砲擊

我海軍活躍

七月中綜合戰果

第廿六次重慶爆擊

[illegible]

八面鋒

[illegible]

人事·集會

[illegible]

對蘇關係改善

웰스米國務次官言明

[illegible]

獨機英海岸에 機雷를敷設

伊軍제이라港占領

[illegible]

二十年의歷史를남기고 本報今十日로써廢刊

方今 世界는 正히 大變改의 時機에 際會햇습니다. 歐洲에서는 獨伊를 中心한 全體主義國家와 英國을 覇者로하는 民主主義國家群과의 一大爭覇戰이 開始되엿고、東洋에서는 帝國을 盟主로한 新東亞新秩序建設運動이 着着 進行됩니다. 我朝鮮日報는 過去 二十年間 朝鮮民衆의 代辯者로서 民衆의 意思를 反映하고 朝鮮統治의 批判者가 되어 朝鮮文化發展에 微少하나마 貢獻한바가 잇다 생각합니다. 더욱 支那事變勃發以後는 一層 國家의 重大時期임을 自覺하고 民衆으로하여금 國家政策에 順應할것을 力說하여 新東亞秩序建設에 적지안흔 貢獻이 잇섯슬것으로 自認하는바이외다. 그러나 最近 情勢는 吾朝鮮日報는 新聞統制의 國策에 依하야 今十日로써 廢刊을 하게되엿습니다. 吾朝鮮日報의 廢刊이 朝鮮文化上、經濟上 重大한 影響이 잇는줄은 알지오만、國策上 不得已한 事情이오니、이點은 滿天下讀者諸位의 高諒을 바랄뿐이외다. 滿二十年間 江湖諸氏로부터 바든 無限한 愛護와 同情에 報答하기위하여 簡單히 謝意를 表합니다.

끄트로 本社發行의 朝光、女性、少年等은 從來와가치 朝光社에서 繼續發行할터이오며 本社에서主催或은 後援하던 事業으로 朝光社에서 引繼바들것은 될수록 繼續하랴하오니버리지마시고 愛護를 바라나이다.

昭和十五年八月十日

朝鮮日報社

朝鮮日報二十年史

咸尙勳

我朝鮮日報는 今十日로써 永遠히 廢刊하게되엿다. 回顧하면 本報가 呱呱의 聲을 지른지 이미 滿二十年! 그간 온갓 風霜을 다 겪거오다가 今日紙齡六千九百二十三號로써 [illegible] 運命을 마치게되니 感慨無量한바이다. [illegible]

第一期草創時代

朝鮮日報의 歷史는 大概 大正九年三月五日의 創刊當時로부터 大正十三年九月까지의 期間을 草創時代, 大正十三年十月부터 昭和八年三月까지를 發展時代, 昭和八年四月로부터 今年今日까지를 飛躍的發展時代 又는 隆興時代라고 分하고십다. 以下 三期에 分하여 大綱을 記하여보자.

첫재 草創時代라할 創刊時期를 보면 例의 大正八年 己未運動이 잇슨 後 齋藤總督이 赴任하여 文化政治의 標榜을 하게되매 民間新聞三個를 許한가운데 하나가 我朝鮮日報이엇다. 當時 民間側으로부터 新聞發行을 要求한 사람이 多數하엿스나 大正親睦會를 中心한 宋秉畯子에게 朝鮮日報, 朴泳孝侯에게 東亞日報, 閔元植氏에게 時事新聞을 許한것이 民間新聞의 始初이다.

大正九年三月五日 創刊當時의 紙面을 보면 夕刊四面이엇는데 [illegible]

第二期發展時代

第二期는 李商在, 申錫雨, 安在鴻氏등 歷代社長으로하는 期間이다. 大正十三年九月 申錫雨氏가 本社의 經營權을 引繼하자 本報는 當時의 志士 要人을 網羅하여 李商在翁을 社長으로 推戴하고 [illegible]

第三期隆興時代

이것은 본 曺晩植氏等과 [illegible] 現社長 方應謨氏가 [illegible]

大鳳式稻刈機 特約店募集

人智의發達은 科學과 機械로써 吾人의想像도못하는 共益이生活上重且大함은 이제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天下의大本이되는 農業에 만이아즉도 原始的作業을 繼續하고잇서 產業生活上遺憾되는바 非一非再임으로 此에 重大關心을둔 發明家金大鳳氏께서는 十餘年을 苦心研究하신結果 最近에이르러 稻刈機發明에 드듸어 成功한것이오매 農具界의 一大革命이된 本發明品은 機械의構造가 極히簡單함으로 一人의普通勢力으로서 本機를使用하여 十五人以上三十人까지의 能率을代身하여 三十斗落 乃至六斗落을 一日에收刈할수잇는 機械로서 稻刈은勿論麥刈까지도 可能한 時代의寵愛品으로 農家에잇서 不可不無할 重寶인만큼各郡에 特約店을設置하야 農業家諸賢의便宜에 供코자하오니有意諸氏는 昭和十五年八月卅一日까지 事務所로申込하여주심을敬要하나이다

帝國發明協會 名譽大賞受領

專賣特許二一八九〇號 大鳳式稻刈機

但、特約店希望者는申込次第說明書及規則書送呈함 郡別指定이 完了될時는 該當場所만은 期日前에라도 受付를謝絶할事有홈

一切通信取扱은事務所에서行함

昭和十五年八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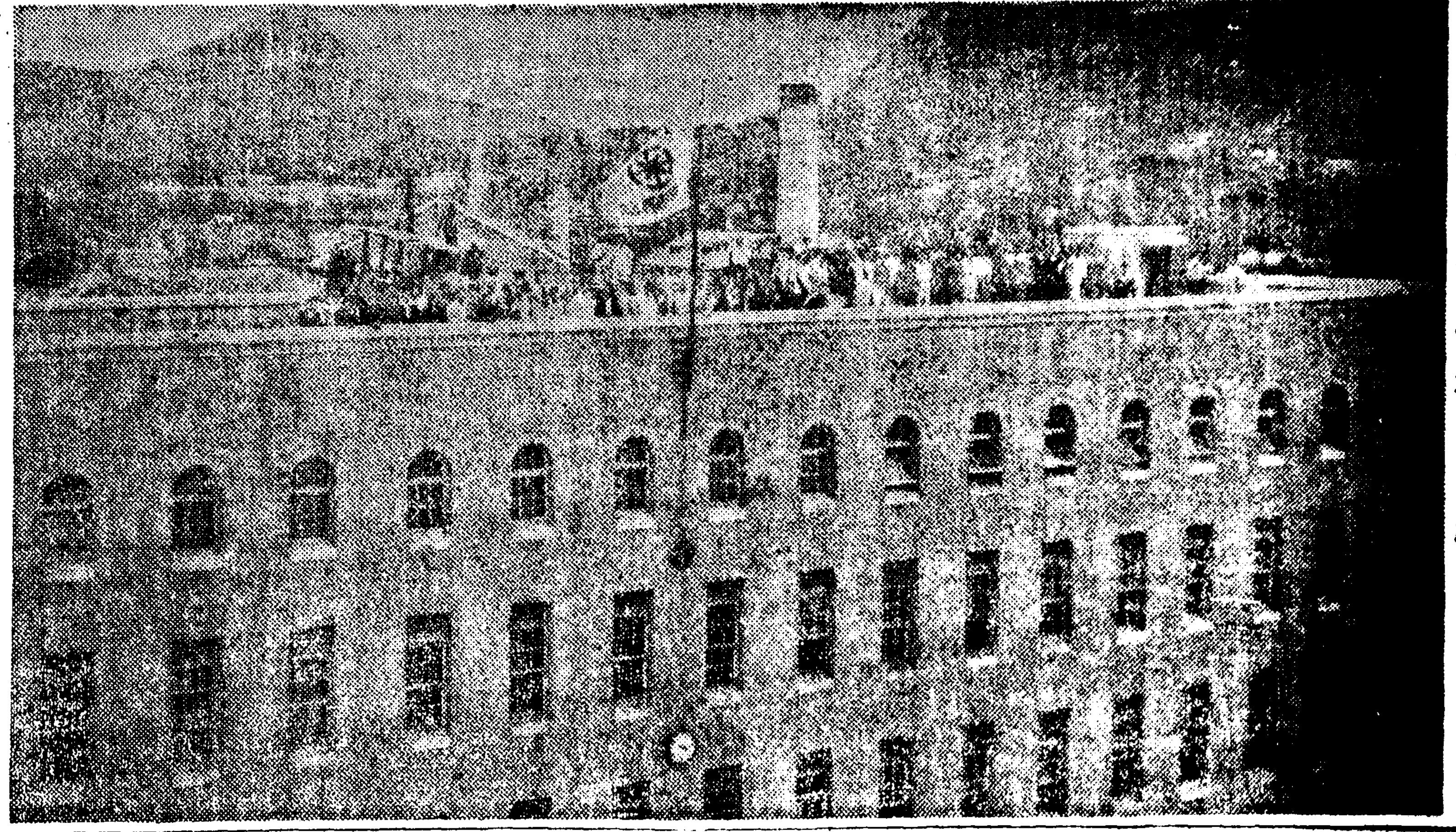
京釜線成歡驛前

大鳳式發明品後援會

專賣特許 大鳳式稻刈機

成歡工場事務所

電話成歡一九番



조선일보사원 폐간기념촬영

文化開發에 一念丹誠
本社廿年間事業足跡

이십년의 세월은 흘럿다 과연 우리의 민중과 더부러 웃고 울른 빗나는 역사의 이십년이엇나 …

本報廢刊과 本社의 善後策

會社는 目的을 變更
大衆醫療事業經營
百萬圓新財團法人東方文化學院에
本社屋과 基地를 寄附

오늘팔월십일 육천구백이십삼호를최종으로 이십년의 빗나는 지지와 편달을 바덧든이리신문화사업의 역활을다하고 폐간을하게되는 우리조선일보는 다음날부터 어떤길로 거러갈것인가 서울장안에 중앙지인태평통거리에 전조선신문계를 굽어살피는듯 위용을자랑튼 오층사옥마 찰신한인쇄설비와 남은재산 이것은 본래가 조선의문화를위하여제공되여 그것의 사업기관으로서 끗까지 만천하의열렬한 지지와 편달을 바덧든이리신문은사 당국으로서도 비록 신문은 폐간되엇다해도 전대로보태은 폐간되엇다해도 의전정신을 가지고 조선문화에 공헌키로하고 사장 방응모(方應謨)씨이하 십일오후 본사주주총회에서 아래와가튼 사업의방향을 결정하고더욱 활동키로하엿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결과로아프로는 의료(醫療)사업을 경영하기로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엿다 그리고 회사의 명칭도적당이 고치기로 되엇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소유인 사옥과 기지일부는 방금 방응모독부에 시청중인 재단법인동방문화학원(東邦文化學院)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엿다 이동방문화학원은 본사사장방응모씨의 소유인수원(水原)농장 삼백칠십정보를 기본으로하여 백만원의 재단법인을 만들기로 된것이다 동방문화학원에서는 조선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목적으로 위대한 사업을 계획하고잇다 또 주식회사조선일보사의 정리위원으로 방응모(方應謨)최용진(崔容鎭)신태악(辛泰嶽)삼씨를 결정하고 아프로 여러가지 잡무를 정리하기로되엇다 …

朝光社는 繼續經營
今後新聞紙法에 依하야 發行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경영하고 도한신문지법으로 발행하던 조광(朝光) 여성(女性) 소년(少年)등 잡지와 그밧게여러가지 유익한서책을 간행하고잇든 「조광사」는 완전히 독립하여 아프로계속하여 조선문화계에 유익한사업을 하여갈터이다 그리고그내용도 더활충 충실하고자 도록차고 있기에 종래에 발행하든것과는 여러가지로 더 충실한 잡지를 발행할수잇게될터이며 따라서 그내용도 쇄신 더 충실하게될것이다 그리고 「조광사」의 사무소는 고서 일부 보아갈터이다

文化賞基金도
朝光社로 引繼

조선일보사에서 금년부터는 문화상기금(文化賞基金)을 …

張鼓峯事件記念日
洪儀에서는 總監以下參席表忠塔除幕式

本社懸賞寫眞
朝光社로 引繼

學齡兒童總數의 約五割을 收容
明年度計畫完遂로

每戶五圓負擔하면
義務敎育實施可能
昭和十八年부터 第二次擴充計畫

思想犯豫防拘禁令
十月頃實施豫定

不順한 氣候!
今年農形에 影響憂慮

天氣豫報

辯護士 李祖遠　京城府瓦町三八番地ノ一　電話 光化門③ 一三五七番

天然整色寫眞術教授　地方ハ通信親切教授ス　京城府橋北町九五 整色化學研究所

少年 九月號 今月十五日發賣　京城太平通 朝光社發行

리질약 (征痢トク)　泰永製藥研究所

朝鮮殖産銀行

朝報社　募集

基督新聞社

丁海順아

巡査受驗募集　朝鮮警察學院

光陽ケ岳住宅地　東京建物株式會社 分讓部

效果本位　月經痛、月經不順、 子宮出血等에……　ユウトン　全國有名藥房販賣

우리말본　조선글·조선말의 …　朝鮮語文法研究의 大權威書　崔鉉培著　中等조선말본　한글의바른길　東光堂書店

山口樂器店鐘路支店

治淋特效

科學戰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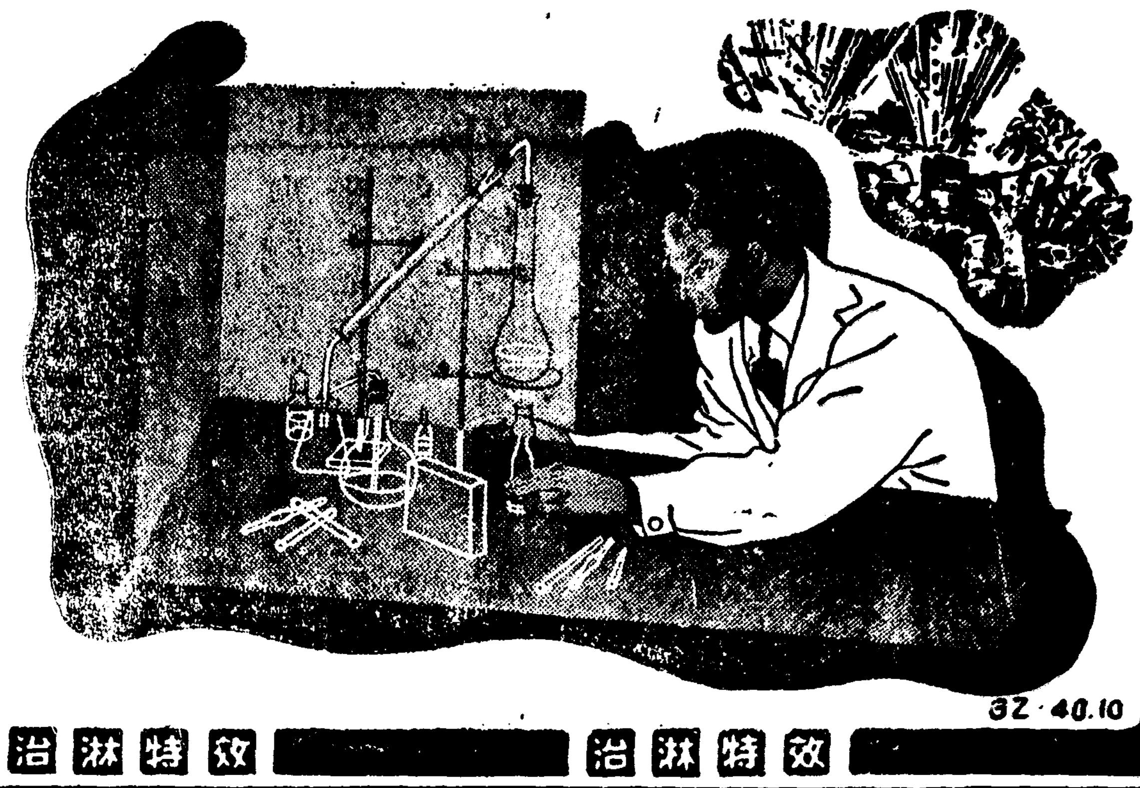
治淋 化學療法의 勝利

現代는 科學戰時代이다。나날이發達하여가는 科學의힘이 얼마나偉大한것인가는 이번戰爭이 如實히證明하야주엇다。科學戰은 이제야말로 戰爭뿐만아니라 產業·醫學等 多方面에亘하야 展開되여 從前의 모―든方法과 手段에 一大革命을 이르키고잇다。

治淋特效劑 チーユーサイド는 …

效果本位

藥劑變換療法



新治淋藥 チーユーサイド G-U-CIDE

包裝 24錠 (全國有名藥房販賣)

株式會社 柳韓洋行

32·40.10

時代的産物"羅津廳" 實現性漸漸稀薄化

焦燥한住民들의對策도漠然

難產? 流產?

【淸津支社】 [illegible]

商街에暗行御使

[illegible]

元山貿易助長策

貿易組合組織計畫

【元山】 [illegible]

꿈은커서十萬圓

滿洲國에 一口二十圓彩票

【奉天】 만주국정부에서는 국민대중의 [illegible]

記者로서본내地方

本社特派員座談會

조선일보가 역사적사명을 마추고 국책에 순응하여 폐간을단행하는 팔월십일을 압두고 지방 제일선에 활약하고잇든 조선일보의 전위부대인 각지특파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안즌것을 기회로 이제 우리는 팔도의 풍물(風物)을 그리는 좌담회를 열기되엿다. 우리는 다년간 조선일보의 기치아래 생활해왓슬뿐아니라 신문을통하여 각자의 지방에서 그지방의 발전에 공헌한바 만흠으로 이제 제가끔 특색잇는 보고담을 모아 내외의 독자대중에 기념으로 선사하려는 바이다―

出席者 八月九日午後二時 本社貴賓室에서

地方部長 李宗洽 / 咸北特派員 吳俠一 / 咸南特派員 朱洛爵 / 全南特派員 卞龍甲 / 黃海特派員 崔仁植 / 忠南特派員 柳一之

仁川特派員 李源昌 / 開城特派員 玄東炎 / 慶北特派員 吳在東 / 元山特派員 劉東緻 / 奉天特派員 金興恩 / 間島特派員 李鼎媛 / 司會 吳在東

◀司會 여러분의 천하심을 인데어 외람히 사회의 소임을 마튼게습니다 오늘 모이신 [illegible] 특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되 [illegible] 먼저 오래일씩 부진석책하의 함경북도의 특수지와 현상을 말씀해주십시요

◀吳俠一… 함북에간지 오년동안에 객관적정세가 퍽도달라진것갓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열려지지안는 처녀지엿기때문에 장차발전할 요소는 어느곳보다도만 혔습니다 지역으로는 내지만주소련삼국의 요충지대에 잇스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放送 (JODK)

八月十日(土曜日)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 [illegible]

十一日(日)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 同七時 宮城遙拜 / 同七時四〇分 …… [illegible]

[illegible]

새벽바람 (完)

第四回 中篇小說

金永壽 作 / 崔永朗 畵

혼자가는길 (三)

[illegible]

[illegible]

本社發行 名著案內

世界名人傳(全三卷) 四六版洋裝美本 一冊定價一、六〇〇 三冊一帙四、八〇〇

朝鮮名人傳(全三卷) 四六版洋裝美本 一冊定價一、三〇〇 三冊一帙三、九〇〇

林巨正(全八卷) (洪碧初著) 一冊二、〇〇 八冊一帙一五、〇〇 四冊既刊 十一月續刊

朝鮮野談全集 一冊定價一、五〇〇 三冊一帙四、五〇〇 四六版洋製美本

朝鮮家庭醫學 四六版布製洋裝 一冊定價二、三五〇 送料

世界傑作童話集 一冊定價一、八〇 送料一六 四六版洋製本

結核豫防讀本 菊版百餘頁 一冊定價一、七〇 送料四〇

小說 그의自叙傳 春園作 四六版洋裝本 一冊定價一、三〇

長篇小說 愛慾의彼岸 春園作 四六版洋裝本 一冊定價一、五〇

現代朝鮮 女流文學選集 四六版洋裝美本 一冊定價一、〇〇 送料一八

新選文學全集 女流短篇集 四六版洋裝美本 定價一、二〇 送料一三

新選文學全集 朝鮮兒童文學集 四六版洋裝美本 定價一、二〇 送料一三

新選文學全集 新人短篇集 四六版洋裝美本 定價一、二〇 送料一三

新選文學全集 朝鮮文學讀本 四六版洋裝美本 定價一、二〇 送料一三

現代朝鮮文學全集(全七冊) 四六版洋裝美本 定價一、〇〇 七冊一帙七、〇〇

探偵小說 魔人 金來成著 四六版洋裝 定價一、〇〇

朝鮮俗談辭典 方鍾鉉著 四六版洋裝 定價三、〇〇

朝鮮時調詩學 安自山著 四六版洋裝 定價一、〇〇

朝鮮料理學 洪善杓著 四六版洋裝 定價一、三〇

朝鮮唱劇史 鄭魯湜著 四六版洋裝 定價一、三〇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光社發行 (振替京城三七一二 電話光七六九〇)

經濟新體制確立 新經濟倫理昂揚緊要

政治의 革新은 國民經濟의 新體制를 確立하는데 있다 … 經濟는 政治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illegible] 新體制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

政治 革命을 遂行한 國家는 …

經濟 政治는 新體制 …

國家 가장 建設的인 …

擴充 …

勿論 …

[illegible]

全朝鮮主要都市의 七月小賣價微騰

騰貴三十四品·低落二十四品·保合二十七品

比前年同月一割八分九厘高

總督府殖産局調査에 依한 七月中의 全朝鮮主要都市의 小賣物價는 如左히 正式發表되었는데 그中 價는 騰貴品目八十五品中 前月에 比하여 騰貴된것이 三十四品 低落된것이 二十四品 保合二十七品으로 總平均은 前月에 比하여 一割八分九厘의 騰貴이다 前年同期에 比하여 一割 八分九厘의 騰貴이다 昭和八年中의 平均價格을 基準으로한 物價指數는 如左하다

七月指數

食料品	二〇五、八	
衣料品及裝身品	二〇八、〇	
建築材料	一九六、〇	
燃料	一五六、〇	
雜品	二〇三、三	
總平均	二〇一、八	

朝鮮紙價格 總督府서 指定?

八月十四日午前九時부터 殖産局北部에서 … 一萬九千五百十一 … 協議會를 開催 … 四千六百四十九件 … 五千二百七十七圓 … 各道의 … 參考로 … 物價調整課에서는 … 調査하기로 … 決定

第四回報國債券 九月에 六千萬圓發行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大藏省內에서 今年五月以來日本勸業銀行으로 하여금 三回에 百廿六分 八千五百萬圓의 報國債券을 賣出하였는바 다시 九月十日부터 同二十五日까지에 第四回報國債券 六千萬圓을 賣出키로 決定하였다 그런데 今回의條件은 從來의 것과 같고 第一回抽籤은 來十一月一日이다 昭和二十五年十月一日이다

興債三千萬圓發行

【東京電話同盟】興業債券三千萬圓 …

一、元利金支拂保證本債券의 元利金支拂에 對하여서는 政府가 此를 保證함

一、申込期間 八月十三日부터同月十五日까지

一、拂込期間 八月二十六日

良質炭田發見

【滿南七日發同盟】山東省內에 있어서의 地下資源은 現下軍事上의 重要性이 增加함에 伴하여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있는데 滿南東方八軒을 中心으로하는 東方九軒、西方十五軒、南方十二軒、北方二軒二十三平方里의 廣大한 地域에 亘하여 日滿合作으로 … 近年에 걸쳐서 開發한 結果 良質炭田을 發見하였다 …

殖産銀行總會

朝鮮殖産銀行에서는 來十五日午前十時부터 同行에서 第四十四回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기로 되었다

米國小麥收獲豫想

【華盛頓九日發同盟】米國農務省은 八月一日現在의 小麥收獲豫想을 如左히 發表하였다

◆冬小麥最終收獲豫想 五五五、八二九(千뻐셸)

◆春小麥 [illegible]

加奈陀麥收穫豫想

【오다와九日發同盟】加奈陀政府統計局은 七月末調査 加奈陀各小麥收穫豫想을 如左히 發表하였다 … 三三、八八〇千뻐셸

滿洲國 貿易管理

【新京九日發同盟】生活必需品의 輸入確保와 奢侈品輸入禁止에 依한 時局下 國民生活의 刷新을 目的으로하고 滿洲國政府는 奢侈品不急品의 輸入制限乃至禁止에 關한 法的措置로서 康德四年十二月公布의 貿易統制法과 이法規의 施行規則을 改正하고 그 適用範圍를 擴充하여 輸出入全品目을 包括하는 全面的 貿易管理를 行하기로하고 이新法案은 來月一日에 公布되어 同日로 實施할 豫定이라 한다

電冶販賣會社創立

朝鮮電氣冶金工業에서는 目下 京城北部에 工場을 建設하고 있는데 近日 完成될것으로 ... 販賣會社로서 「헤로실콘」과 「카바이트」의 資本金十九萬圓의 新會社를 設立하기로 되었다

◆武者鍊三氏(京城電氣常務) 旅行中 九日歸任

敦岩町路線延長 보기車十臺購入 京電下期豫算七百萬圓

京城電氣에서 武者鍊三氏는 同社重役會에 出席하여 京電의 事業에 있어서 보기車十臺購入 一、自動車(시내)의 入還車輛 … 이번 九日 그 概要는 … 京城電氣會社의 今期豫算은 … 七百數十萬圓 …

內地移出小包 郵便審査成績

朝鮮에서 內地로 移出되는 小包郵便物을 審査中 … 七月中의 그取扱狀況은 …

十字路

▼…이날로서 本欄新刊、本欄을 通한 …

▼…讀者諸位의 …

▼…바라건대 새해가 …

▼…아모리 公益優先下에 …

株式 少堅商状 强調

今日의市勢 十日

前場少高 今朝은 多少이나마 買氣가 보이어 東新九十六圓九、高 …

人氣多少轉換

英佛海峽에서는 一大決戰이 展開되어 …

實物前場賣買市勢

[illegible]

海外經濟 九日

[illegible]

銀行券 九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八分一

株式 (十日)

[illegible]

三中井 株 … 京城府黃金町 營業案內進呈

棉花 / 綿布 / 生糸 / 鰮油粕·麥粉

[illegible]

三國志 (281)

韓龍雲譯 熊超畫

荊州의 爭奪(五)

「주유가 놀라기는의 계주으로 … 」

[illegible]

俗談大辭典

方鍾鉉 金思燁 共編

四六版洋裝布製 一册定價 極上本 三圓也 書留送料 二十七錢

朝鮮人이가진言語文化의最大遺産發掘!!

浩汗한朝鮮俗語의大樹海!! 風俗·生活·感情의大貯水池!!

俗談이란것은 그나라 그民族의 歷史와風俗과 生活의 遺産으로써 하나의 精神文化의 大斷面임에틀림없다 本書는 이方面의權威인 方鍾鉉、金思燁兩氏가 帝大在學時부터 이方面에 留意하고 于今 七八星霜을 挾하야 이에 完成을 보게되엿다。이册을 完成하기까지에 著者들의苦心이란 非常하야 一便으론 各種文獻을 涉獵하며 俗語俗談을 蒐集하고 다시 全鮮各地를 親히巡訪하야 이에 朝鮮言語文化의 一大端期를 作하엿다。內容은 全朝鮮은 勿論이오 南海、濟州島에일으기까지 朝鮮사람이 使用하는 俗語俗談을 모다 收錄하고 다시 附錄으로 旬五志 耳談、東言解、索引까지 附한것이다。생각하면 이一册辭典中에 朝鮮사람의 生活과 風俗과 感情이 歷史的으로 闡明되여 우리 言語文化의 全幅이 躍如하게되엿다。朝鮮文化에 關心을 가지는사람은 勿論이오 朝鮮語、朝鮮文學에 關係가잇는사람은 누구나 아니볼수업는 大著이다。생각하면 이册은 浩汗한 朝鮮語의 大樹海로써 우리 言語文化의 大發掘임을 斷言한다。

著作의말 方兄과 나두사람은 滿滿한 野心을품고 小心翼翼이 俗談과 俚語를 熱心蒐集하는中 一方旣集된 것은「카드」에다가 記錄分類하여 整理도하고 同時에 參考文獻의 探索에도 專心하엿다。大抵 但俚諺辭典의 編纂에는 口頭에 오르나리는 俚諺은 勿論이오 古今의 群籍을 涉獵하야 文學의 恒河沙中에서 俚諺의 算珠를 가려내지안으면 안되나니 이것을 實行함에는 不測의 難關이 가루노여잇섯다(下略)(金思燁)

好評嘖嘖의本書!!

朝鮮俗語의大貯水池 歷史家 黃義敦

俗談과俗語는 한나라 한民族의、風俗과 生活과 感情을 말하는、歷史的遺産이다。四千年동안 우리들의 言語가、坊坊谷谷에 흐터저、물속에무치거을 方鍾鉉、金思燁兩氏가、血汗을 무릅쓰고 全鮮各地를 巡訪하며、七八個星霜을 挾하여、完成한것으로 實로 우리 朝鮮言語文化의 一大貯水池가 안일수가업다、一般文化의 關心을 가진사람은 勿論이오、적어도、文學이나、藝術을 論하는 사람은 아니볼수업는 近來의 大名著는、우리出版界의 快消息이 안일수업다。云云

言語文化의大衣裳 評論家 咸尙勳

言語가 한나라 文化의 衣裳이되는것은 말할것이 업거니와 더구나 俗談이나 俚諺이라는것은 거기 그나라 그人民의 生活感情과 風俗習慣이 잘 表現되여잇서서 한개 側面史가 되어잇는것이다。이번 方鍾鉉、金思燁兩氏가 編纂한『朝鮮俗談辭典』은 朝鮮坊坊에 허터저잇는 朝鮮俗談과 俚語 五六千語를 蒐集한것으로 實로 우리 言語生活에 一大劃時期的盛擧이라고 아니할수업다。이러한 朝鮮에서는 一大出版이거니와 言語의 關係를가진 一般文化人은 누구나 아니볼수업는 好資料임을 斷言한다。

우리生活의警句 詩人 毛允淑

이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俗談大辭典이라는것보다 우리 生活에서 얻지못할 眞理를 비롯한 全部상상해 놓앗다고 보앗습니다。가장 적실하면서도 그안에 正直하고 날카로운 批判이 보는사람의 마음을 긴장하게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여러나라의 警句보다도 내피와 뼈에 適하이잇는 이册을 더조와합니다。

朝鮮時調詩學

自山安廓先生著

一册定價 一、〇〇也 書留送料 十六錢也 四六版洋製極美本

本書는 著者가 十五個年의 星霜을 挾하여 心血을 짜내인 結晶으로써 千古의 疑問인 時調詩의 定型을 發見하여 그正則과 變則을 解說하고 다시 朝鮮文法의 三十餘則을 發見하야 朝鮮文藝의 面目을 나타내는 同時에 時調作法을 詳述한 大名著이니 一般文學人으론 아니볼수업는 良書이다。

朝鮮料理學

洪善杓先生著

四六版三色版洋裝美本 一册定價 一圓三十錢 書留送料 二十二錢

『朝鮮食饌研究所』를 設立하고 銳意專心 여기專力한 洪善杓先生이、二十年研究의 結晶으로、이册을 著述한것이다。이册의 內容은、各種食物은 勿論이오、百穀果實에、일으기까지 그成分、養分、및 一部貯藏과 또는 宮中料理의 製法까지 記錄한 朝鮮家庭의 生活讀本이다。

朝鮮唱劇史

鄭魯湜著

四六版洋裝本 一册 一、三〇錢 送料 二四錢

이『朝鮮唱劇史』는 鄭魯湜氏의 快心의 名著로서 朝鮮古樂을 復興하려는 堂堂한 內容을가진 册이다 朝鮮歌曲의 源流인 唱劇調의 史的考察과 同時에 史上에 빗나는 六十餘名 音樂家의 生涯를 記錄한 好評의 大著이다。

京城太平通一丁目一六一

朝光社發行

(振替京城三二七一一番)